

Time, 2025. 7. 24.

승리를 향한 미국의 AI 패권 레이스, AI Action Plan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포괄적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AI Action Plan'을 공개



이 계획은 혁신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글로벌 표준 주도까지 포함하여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

▶ 혁신을 위한 규제와의 전쟁, “레드 테이프를 잘라내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8페이지 분량의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미국을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 확립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인프라 확충-글로벌 리더십 확보라는 세 축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 축으로 연방 기관들이 AI 개발과 배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규제를 식별해 수정·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州) 차원의 규제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에 대한 AI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 철풀기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 과정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등 편파적인 이념적 편향이 주입된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AI 시스템이 '사회 공학적 의제'가 아닌 진실과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요구했다.

▶ “AI 패권의 밑그림을 위한 전력망과 환경 규제 장벽 허물기

두 번째 축은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미국의 AI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에너지 용량이 정체된 동안 중국이 빠르게 전력망을 확장한 점을 지적하며, 환경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인프라 성장을 늦춘 주범이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 허가를 간소화하거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및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등의 규제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조치와 함께 미국의 AI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 글로벌 AI 표준 선점: 미국식 가치 확산 전략

마지막 축인 글로벌 리더십 부문에서는 미국이 국내에서 AI를 육성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 AI 시스템과 표준 채택을 주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우방국들에게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표준을 포함하는 미국의 전체 AI 기술 스택을 수출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UN, G7 등 국제기구들이 제안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부담스러운 규제나 미국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문화적 의제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며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맞서는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강력히 옹호할 것을 연방 기관에 주문했다.

7월의 용어 AI 행동계획, AI 이념적 편향, AI 거버넌스

출처 : 1) Time(2025. 7. 24), Trump Unveils Plan to Win AI 'Race' by Stripping Away Regulations: What to Know.
2) The White House(2025. 7. 23), White House Unveils America's AI Action Plan